[이웃과 함께하는 주거문화]

[이석정]

[ISA-Stadtbauatelier 공동대표, 독일 건축가]
[seogjeong@hotmail.com]

ABSTRACT

주거건축은 나와 나의 가족이 사는 공간으로서 다분히 사적이며 개인적인 공간이어야 한다. 반면에 건축은 그 시대 그 사회의 문화, 경제 그리고 정치가 공간으로 표출된 것으로, 다분히 „집단적“ 또는 사회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다. 더욱이 세상 모든 축조물의 70% 이상이 주거건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건축의 „사회성“은 더욱 무거워 질 수 밖에 없다.

이런 맥락에서 주거공간은 단순히 나와 나의 가족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,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. 무엇보다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을 줄이고 천연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주거건축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절실하다.

어디에서, 어떤 삶의 패턴을 갖고,어떤 형태의 주거를 누리는 것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이웃과 세상에도 보탬이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.

Keywords
다양한 공동주거, 사회적이며 환경친화적 주거 패턴